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인천의꿈* 대한민국의미래
	배포일자	2022년 11월 14일(월) 총 4매	
담당 부서	총 무 과	담당 자	• 총무팀장 한교동 ☎440-2501 • 담당자 한상우 ☎440-2505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복 시장, 프랑스서 제2의 인천상륙작전 시동

-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 정상급 안보행사·범시민협의체 구성도 -
- 노르망디상륙작전 벤치마킹.. 인천상륙작전 세계적 행사로-

인천시가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이에 걸맞게 내년부터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을 대규모로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 출장중인 유정복 시장은 현지 시간으로 11월 13일 노르망디 상륙작전 현장을 방문하고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을 국가행사급으로 격상시켜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한 국제적 결집의 장으로 만들어 나가겠다” 고 말했다.

이번 해외 출장일정 중 첫 방문지인 노르망디 캉*(Caen) 기념관은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를 국가급 국제행사로 격상시키고 세계적 축제로 발전시키겠다는 유 시장의 계획과 관련이 있다.

* 프랑스 노르망디 지방 칼바도스주의 주도

지난 9월 15일 4년 만에 개최된 72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 기념행사에서 유 시장은 인천상륙작전을 프랑스의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버금

가는 행사로 발전시켜 더 나은 대한민국의 내일을 여는 제2의 인천상륙작전의 초석으로 삼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2차 대전의 전세를 뒤엎어 연합군을 최종 승리로 이끈 노르망디 상륙작전과 수도 서울을 탈환하는 발판이 됐을 뿐만 아니라 낙동강전선의 북한군 주력 부대를 포위·붕괴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인천상륙작전은 모두 20세기 전쟁사를 바꿔 놓은 기념비적인 작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해마다 20여개국의 정상들이 모여 화해와 외교를 펼치는 노르망디 상륙작전 기념식과는 달리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는 참전용사와 유가족 등을 초청해 개최하는 기념식과 몇 가지의 추모식이 전부다.

인천시는 72년 전 전쟁의 양상을 바꿔 승리의 역사를 만들었던 인천상륙작전을 재조명해 인천의 위상을 제고하고, 인천이 가진 잠재력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인천의 기적을 재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유 시장은 조엘 브뤼노 캉시장을 만나 세계전사에 빛나는 상륙작전 기념사업을 발전시키는데 뜻을 모으고 캉시 대표단을 인천시에 초청했다. 이에 대해 브뤼노 캉시장은 초청을 수락하며 “‘기억과 추모의 관광’은 모든 세대에게 중요한 만큼 인천시와의 협력사업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와 함께 캉시장은 2024년 노르망디 상륙작전 80주년 기념행사에 인천시를 초청했다.

인천시는 민선6기 유정복 시장 재임시절인 지난 2017년 노르망디주와 ‘문화유산보존 및 평화수호를 위한 우호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각 분야별 교류 협력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인천시는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을 내년부터 연도별 단계적으로 확대해, 75주년이 되는 2025년에는 8개국 정상들이 참여하는 국제행사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에 관련 TF와 함께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 추진 범시민 협의체도 구성할 방침이다. 또 역사·기념관 건립 등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도 추진하고 중앙정부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내년부터 일회성 기념 행사가 아닌 기념주간을 지정하고, 인천상륙작전 재연식을 비롯해 국제안보포럼, 참전용사 호국보훈 문화체험, 9.15마라톤대회와 안보그림그리기 대회, 인천상륙작전 영화상영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된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상륙작전은 노르망디상륙작전과 같이 전세계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역사적 의미와 가치가 있다”면서 “내년부터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의 규모와 기간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2025년에는 상륙작전과 한국전쟁에 참전한 모든 국가들의 정상들과 참전용사들이 함께하는 국제행사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또 세계적으로 공유된 인천상륙작전의 가치는 인천이 초일류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관련 사진은 인천시 홈페이지 '보도자료'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붙임> 9.15 인천상륙작전기념 사업화 추진방안

참전국과의 네트워크 형성, 해군참모총장 초청 및 참전용사 명예선양 행사 발굴 등을 통하여 제75주년인 **2025년을 목표로 대규모 국제행사 기획 운영**

1 사업의 필요성

- 인천상륙작전은 세계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업적임에도 단순 기념식만 추진
- 참전용사의 희생을 기리고 자유 수호를 위한 대규모 연례 행사 필요
- 역사적 가치를 더욱 높이고 자원화 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 필요

2 추진방향

- (제73~74주년<'23~'24년>) 연도별 단계적 확대추진 계획으로 참전용사, 유가족 초청을 통한 대규모 시민안보축제의 다목적 행사로 기획 운영
- (제75주년<'25년>) 국방부의 5년 단위 대규모 행사추진 방침 의거 국가적 국제행사로 참전국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각 국 해군참모총장과 주요인사 초청** 및 참전국과의 협력 프로그램 기획 운영
- ('23년부터 지속) 참전국과의 우호적 외교관계 · 네트워크 구축 및 발전방안 수립, 인프라 조성 등 기념사업 규모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

(대내) 국민들의 호국보훈 의식함양 및 지역 경제활성화

(대외) **역사적 가치를 잊지 않고 잇는 선진 대한민국 인천 위상 제고**

3 추진사항

- 공동주관 기관인 市와 해군본부의 공고한 협업체계 기틀 마련

4 향후계획 * 주요사항 위주

- ('23.1~2월한)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 추진 범시민협의체 구성·출범
- ('23.4월한) 행사 추진 관계기관 및 부서 등 TF 조직 구성·운영
- ('23.5월~) 해군본부 네트워크 활용, 국외 초청인사 지원체계 마련
- ('23.6월) 역사·기념관 건립 등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 실시